

2022년 7월호

상용차 산업 동향

1. 2022년 상반기 중대형상용차 생산 현황
2. 화물연대전북본부 총파업 현장을 가다
3. 언론 보도 및 주요 활동



2022.07

상용차 산업 동향

발행일 | 2022. 7.

발행인 | 손덕현, 서영우, 유준, 염경석

발행처 | 상용차산업 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금속 전북대책위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설 전북노동정책연구원

편집인 | 유기만(010.9887.7659)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57 3층

2022년 상반기 중대형상용차 생산 현황¹⁾

요약

상반기 국내 자동차 생산 현황은 지난해 동월 대비 2%p 감소했다. 한국지엠이 149,731대에서 124,585대로 -25,146대(16.8%) 감소하여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현대차 상용이 161,053대에서 149,504대로 -11,266대(10.7%p) 감소했다. 르노코리아가 51,548대에서 75,800로 24,252대(47%p) 증가했으며, 쌍용자동차가 39,066대에서 47,943대로 8,877대(22.7%p) 증가했다.

감소폭은 상용차가 승용차 보다 훨씬 컸다. 승용은 약 165만대에서 162만대로 24,033대로 감소폭이 1.5%p였으며, 상용은 161천대에서 149천대로 11,549대 감소하여 감소폭은 7.2%p로 나타났다.

타타대우상용차는 지난해 보다 390대 증가하여 9.2%p 생산량이 늘었으며 현대와 기아는 모두 감소했고 특히 현대 상용차 생산이 -11,266대 감소하여 약 -10.7%p 감소했다.

상용차 중 중대형상용차는 21년(1~5월) 31,997대에서 22년(1~5월) 26,160대로 지난해 보다 5,837대 감소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은 현대 중형트럭으로 11,394대에서 8,161대로 지난해 보다 3,233대 감소했으며, 기아 특장은 6,753대에서 4,073대로 2,680대 감소했다. 버스의 경우 대형 버스는 현대, 기아 모두 증가했다. 타타대우 상용차는 중대형, 특장 모두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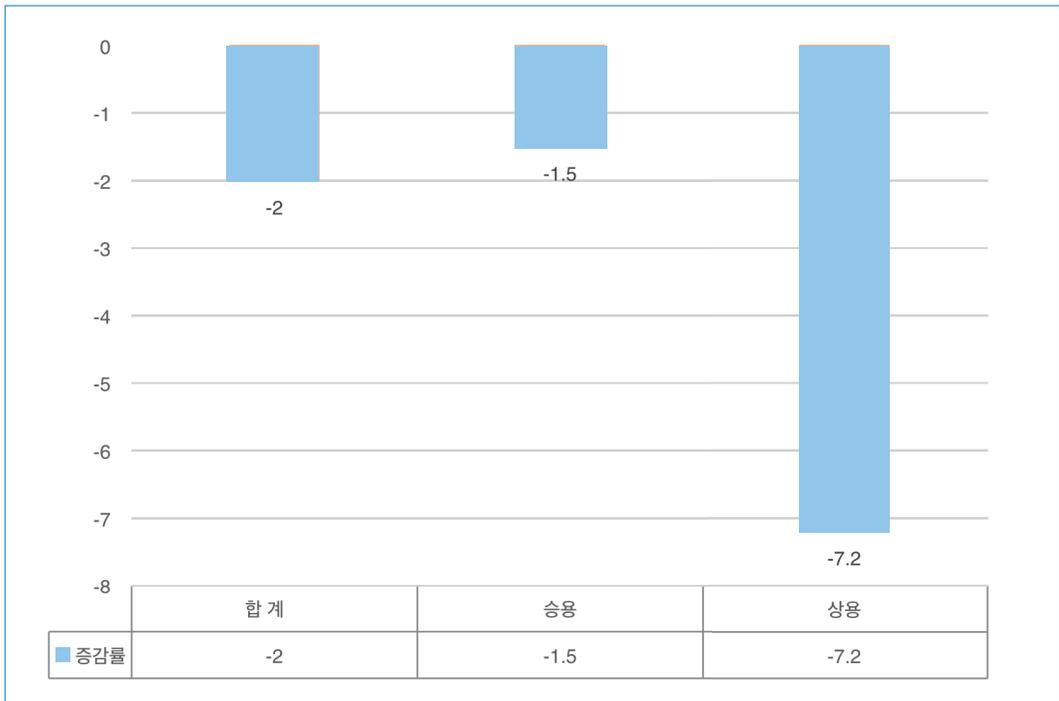
현대차의 경우 중대형 트럭에 대한 시간대 생산 대수 조정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상반기 생산량이 줄었으며, 타타 대우상용차의 경우 건설 경기의 회복 등으로 대형트럭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1) 출처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1. 2022년 상반기 자동차 생산 현황

	1~6월	비율	1~6월	비율	22-21	증감률
합계	1,814,626	100.0%	1,779,044	100.0%	-35,582	-2
승용	1,653,573	91.1%	1,629,540	91.6%	-24,033	-1.5
상용	161,053	8.9%	149,504	8.4%	-11,549	-7.2
현대	829,997	45.7%	817,853	46.0%	-12,144	-1.5
승용	725,174	40.0%	724,296	40.7%	-878	-0.1
상용	104,823	5.8%	93,557	5.3%	-11,266	-10.7
기아	740,067	40.8%	708,256	39.8%	-31,811	-4.3
승용	688,652	38.0%	656,916	36.9%	-31,736	-4.6
상용	51,415	2.8%	51,340	2.9%	-75	-0.1
한국지엠	149,731	8.3%	124,585	7.0%	-25,146	-16.8
승용	149,133	8.2%	124,585	7.0%	-24,548	-16.5
쌍용	39,066	2.2%	47,943	2.7%	8,877	22.7
르노코리아	51,548	2.8%	75,800	4.3%	24,252	47
타타대우	4,217	0.2%	4,607	0.3%	390	9.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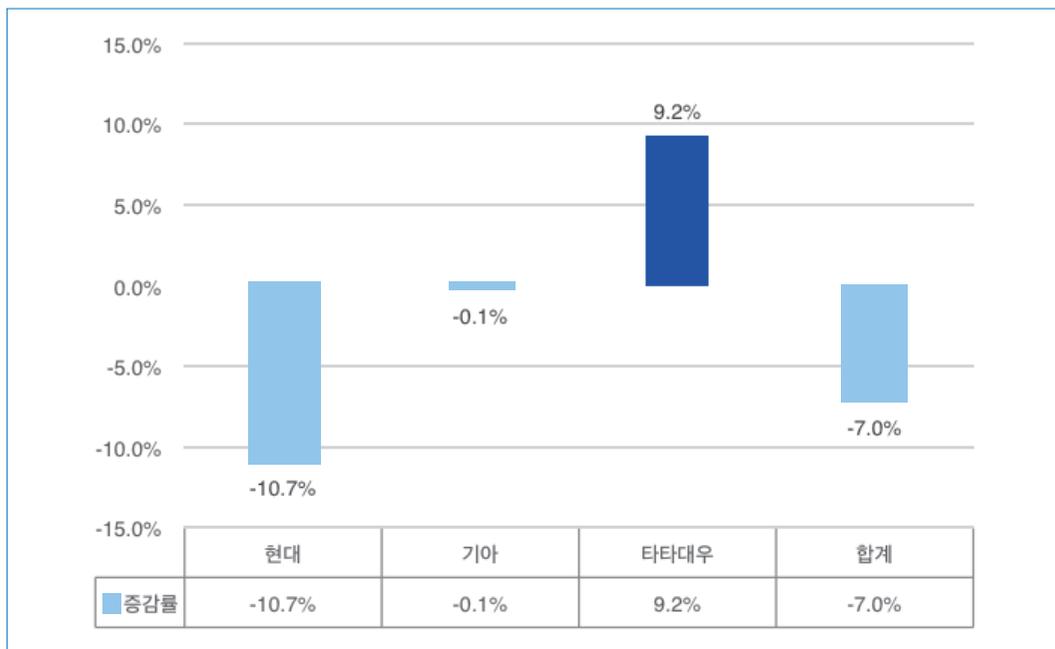


상반기 국내 자동차 생산 현황은 지난해 동월 대비 2%p 감소했다. 한국지엠이 -25,146대로 16.8% 감소하여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현대차 상용이 -11,266대로 10.7%p 감소했다. 르노 코리아가 24,252대로 47%p 증가했으며 쌍용자동차가 8,877대로 22.7%p 증가했다.

감소폭은 상용차가 승용차 보다 훨씬 컸다. 승용은 약 165만대에서 162만대로 24,033대로 감소폭이 1.5%p였으며, 상용은 161천대에서 149천대로 11,549대 감소하여 감소폭은 7.2%p로 나타났다.

2. 2022년 상용차 생산 현황(소형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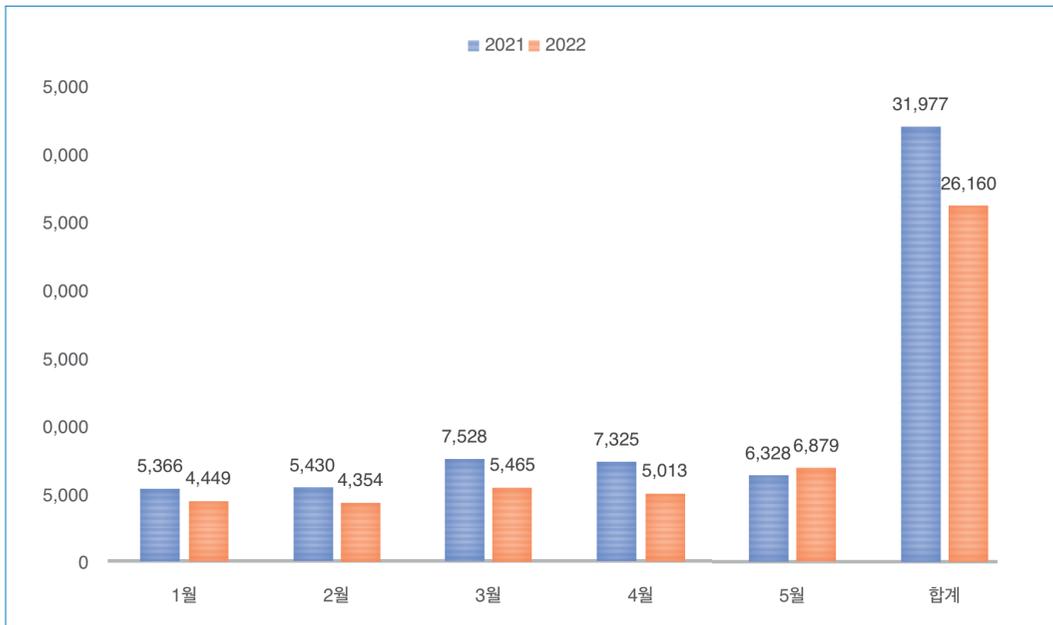
	2021		2022		22-21	증감률
	1~6월	비율	1~6월	비율		
현대	104,823	65%	93,557	63%	-11,266	-10.7%
기아	51,415	32%	51,340	34%	-75	-0.1%
타타대우	4,217	3%	4,607	3%	390	9.2%
합계	161,053	100%	149,504	100%	-11,549	-7%



상용차의 경우 타타대우상용차는 지난해 보다 390대 증가하여 9.2%p 생산량이 늘었으며 현대와 기아는 모두 감소했고 특히 현대 상용차 생산이 - 11,266대 감소하여 약 - 10.7%p 감소했다.

3. 2022년 중대형 상용차 생산 현황(2021년 대비 1~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합계
2021	5,366	5,430	7,528	7,325	6,328	31,997
2022	4,449	4,354	5,465	5,013	6,879	26,160



3-1. 중대형 차종별 상용차 생산 현황(2021년 대비 1~5월)

		2021	2022	22-21	증감율
현대	중형버스	1,406	1,382	-24	-2%
	대형버스	994	1,159	165	17%
	중형트럭	11,394	8,161	-3,233	-28%
	대형트럭	1,693	870	-823	-49%
	특장	740	1,160	420	57%
기아	대형버스	175	335	160	91%
	중형트럭	5,595	5,424	-171	-3%
	특장	6,753	4,073	-2,680	-40%
타타대우	중형	1,788	1,904	116	6%
	대형	941	1,167	226	24%
	특장	497	525	28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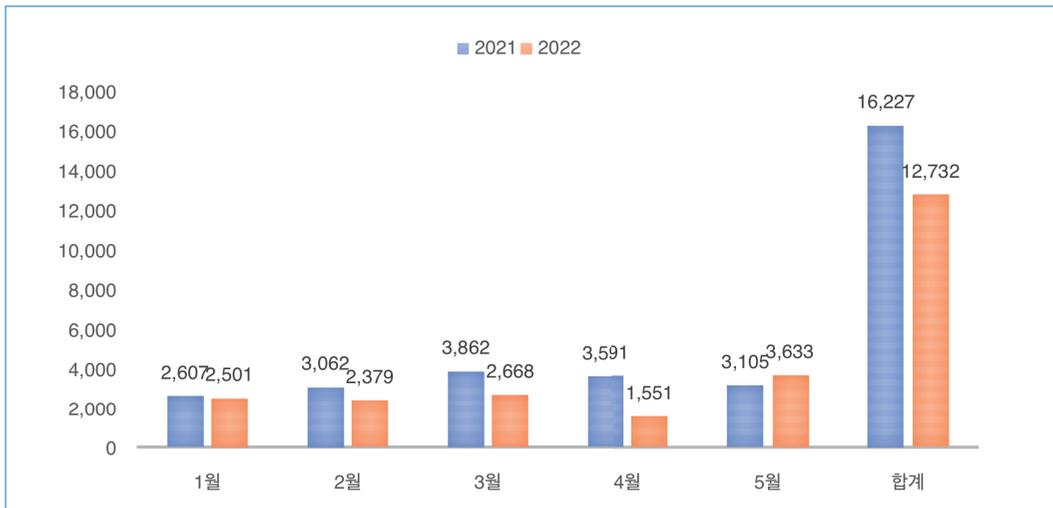


중대형상용차는 21년 31,997대에서 22년 26,160대로 지난해 보다 5,837대 감소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은 현대 중형트럭으로 지난해 보다 3,233대 감소했으며 기아 특장은 2,680대 감소했다. 버스의 경우 대형 버스는 현대, 기아 모두 증가했다. 타타대우 상용차는 중대형, 특장 모두 증가했다.

4. 제작사 별 중대형 상용차 생산 현황

4-1. 현대 중대형 상용차 생산 현황 (2021년 대비 1~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합계
2021	2,607	3,062	3,862	3,591	3,105	16,227
2022	2,501	2,379	2,668	1,551	3,633	12,7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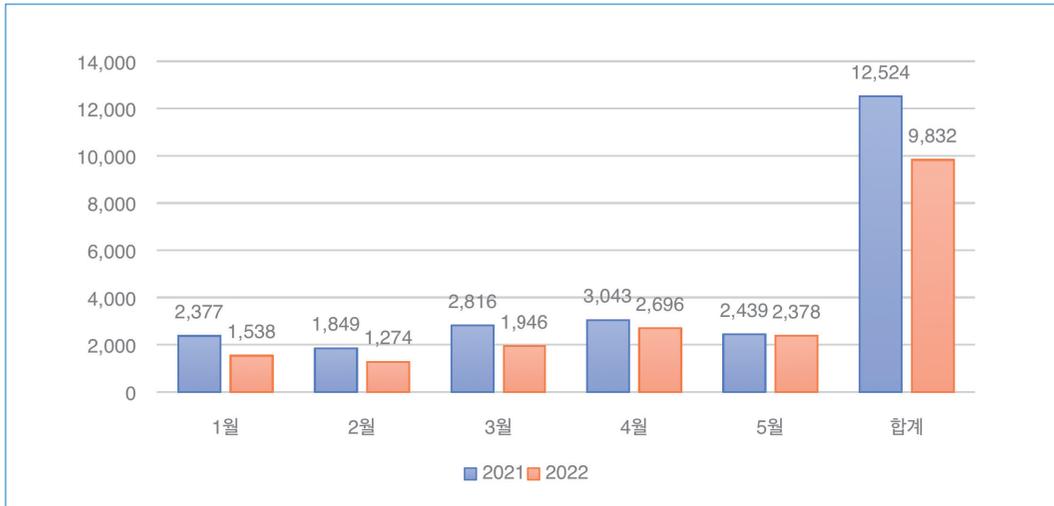


현대 차종별 중대형 상용차 생산 현황 (2021년 대비 1~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합계
버스	중형	2021	121	256	374	316	339	1,406
		2022	269	279	279	263	292	1,382
	대형	2021	181	207	211	242	153	994
		2022	180	209	300	208	262	1,159
버스 소계 2021			302	463	585	558	492	2,400
버스 소계 2022			449	488	579	471	554	2,541
계			751	951	1,164	1,029	1,046	4,941
트럭	중형	2021	1,970	2,132	2,692	2,475	2,125	11,394
		2022	1,672	1,460	1,613	920	2,496	8,161
	대형	2021	248	334	418	357	336	1,693
		2022	290	174	157	41	208	870
트럭 소계 2021			2,218	2,466	3,110	2,832	2,461	13,087
트럭 소계 2022			1,962	1,634	1,770	961	2,704	9,031
특장	기타	2021	87	133	167	201	152	740
		2022	90	257	319	119	375	1,160

4-2. 기아 중대형 상용차 생산 현황(2021년 대비 1~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합계
2021	2,377	1,849	2,816	3,043	2,439	12,524
2022	1,538	1,274	1,946	2,696	2,378	9,8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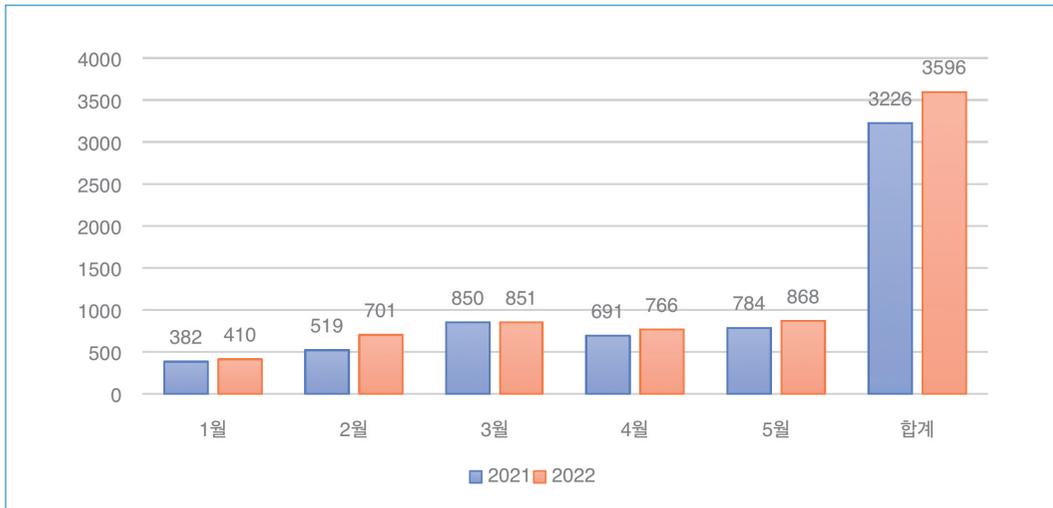


기아 차종별 중대형 상용차 생산 현황(2021년 대비 1~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합계
버스	대형	2021	20	25	30	50	50	175
		2022	80	50	60	70	75	335
트럭	중형	2021	840	879	1,209	1,480	1,188	5,596
		2022	1,317	1,036	685	1,343	1,043	5,424
특장	기타	2021	1,517	945	1,577	1,513	1,201	6,753
		2022	141	188	1,201	1,283	1,260	4,073

4-3. 타타대우 중대형 상용차 생산 현황(2021년 대비 1~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합계
2021	382	519	850	691	784	3,226
2022	410	701	851	766	868	3,596



타타대우 차종별 중대형 상용차 생산 현황(2021년 대비 1~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합계
			트럭	중형	2021	167	316	438
2022	169	437			488	333	477	1,904
대형	2021	164		136	231	210	200	941
	2022	160		209	246	284	268	1,167
특장	기타	2021	51	67	181	79	119	497
		2022	81	55	117	149	123	525

화물연대전북본부 총파업 현장을 가다

화물연대는 지난 안전운임제 관련 총파업 이후 각 지역마다 사업장 교섭이 끝나지 않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교섭을 해왔다. 전북지역은 부안 참프레가 22년 교섭이 끝나지 않았다.

참프레는 닭고기 등을 가공 판매하는 회사로 꽤 규모가 있는 회사다.

화물연대는 5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8차례 교섭을 했지만 사측은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인 최저임금 수준의 운송료 인상과 차량 매매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에 대하여 전혀 듣지 않고 교섭 때마다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화물연대 전북본부는 7월 1일 파업에 돌입하여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부안 경찰은 집회를 하는 화물연대 본부장을 연행하는 등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차주가 계약기간에 차량 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전북지역 어느 기업에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제도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류값 인상에 최저임금 수준의 운임료를 인상하라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7월 14일 화물연대 전북본부에서 부안 참프레 앞에서 출정식을 하고 있다.



7월 22일 김명섭 본부장과 유기백 참프레지회장이 참프레 군산사료공장 위 고공농성 돌입



민주노총전북본부는 7월 18일 부안 경찰의 계속된 화물연대 간부들에 대한 연행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전북경찰청 앞에서 진행하였다.

언론 보도

| 전주MBC |

상용차 위기인데..노사정협의체 ‘삐걱’

◀ 앵커 ▶

상용차 업계의 위기가 이어지면서 국내 상용차 생산의 95%를 차지하는 전북 경제의 한숨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노사정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김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끝을 모르고 추락해온 전북 상용차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해 초 구성된 노사정 협의회. 상용차 생산의 양대 축인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의 노사, 그리고 전라북도와 관련 시군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해에는 정부에 상용차 관련 대책을 공동으로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분기마다 개최됐던 노사정 협의회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측이 불참을 통보해왔기 때문입니다.

[전북도청 관계자]

“현대차 없이, 사측 없이 진행하면 노정 협의가 되는 것이잖아요. 취지에 맞지않다고 생각해서 연기를 한 것이고요. 사측의 참여를 저희가 계속 독려할 것이고요.”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내 제조업의 20%를 떠받치는 상용차 산업 회복을 위해 어렵게 만든 협의체가 사측의 불참으로 유명무실화 됐는데도, 전라북도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유기만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 조직부장]

“상용차 산업은 정말 마지막 주력 산업인데 현대차가 불참한다는 이유로 그냥 노사정 협의체를 무기한 연기한다는 게 이게 과연 책임있는 지방정부의 모습인가 싶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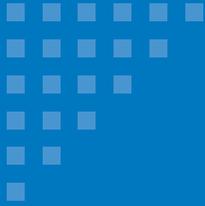
최근에는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개발 의지가 꺾인 것 아니냐는 관측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성이 불투명하고, 새 정부의 지원 의지도 불확실한 수소차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수소 상용차 생산 거점으로서 인프라를 준비해 온 전라북도의 정책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전반적인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2022.07.07. 김아연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659/0000003977>



2022년 7월호

상용차 산업 동향

